

## 죽음은 벽인가, 문인가? - 영화를 통한 이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정현채  
(hyunchae@snu.ac.kr)

수년전 어느 일간 신문 기사에 의하면 어느 재벌 그룹의 명예 회장이 고령의 나이에 임종이 임박해 오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비서들과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고 한다. 후속기사가 없어서 이분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고 세상을 떠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평소에 돈과 명예만 추구하지 말고 죽음 문제에 진작 관심을 쏟을 걸 하고 후회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로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조선 왕실 인장 중에 상우천고(尙友千古) 라는 말이 있다. 고전을 읽어 봄으로써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옛 사람과 친구가 된다는 의미인데, 시대와 공간을 넘어선 이 같은 소통과 만남의 체험은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종합예술인 영화에는 음식, 복장, 주거 형태를 비롯해, 그들이 겪었을 사건들과 무수한 삶의 자취들, 그리고 출생과 죽음과 병듦과 늙음을 겪으며 느꼈을 감정의 곁곁이 담겨져 있어서, 영화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타인들과 만나고 소통하게 된다.

영화가 이 같이 문화인류사적으로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판이나 공감을 통한 영화 읽기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들이 여기저기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여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나 존재 이유를 발견하도록 이끌기 위한 웰다잉 교육에서 영화는 더욱 더 효과적인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

의과대학 실습교육 과정에서 의학과 학생들이 말기 질환으로 임종이 임박한 환자를 보거나 이들의 임종 현장에 참여하는 것은 예비의사로서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나, 병실 실습을 하는 의학과 학생의 10-20% 만이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의학교육의 현실이다. 따라서 말기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임종을 다룬 영화를 보게 함으로써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오다기리 조가 주연한 영화 “도쿄타워”는, 영화의 후반부에서 말기 위암으로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주인공의 어머니를 그리고 있는데, 말기 암의 증상, 항암 화학요법 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과 임종에 이르는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어서, 내과 실습을 도는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줌으로써 상당한 교육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김명민과 하지원이 주연한 영화 "내 사랑 내 곁에"는 루게릭병에 걸린 주인공이 점차 사지가 마비되면서 맞게 되는 임종을 잘 그리고 있다. 주인공이 투병 중 알게 된 여자 장례지도사는 바람직한 죽음 문화의 정착을 위해 입관체험 행사를 열면서 경로당 노인들에게 관 속에 들어가 볼 것을 권유하지만, "이게 지금 나보고 죽어보라는 거야, 뭐야? 노인네들 모아 놓고 희롱하는 거야? 뭐야 도대체?" 하는 폭언과 함께 폭행까지 당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무관심과 부정, 회피 그리고 혐오인 경우가 많다.

영화 "이끼루"는 '살다', '살아 있음'이라는 의미이나 사실은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나생문"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일본의 故 구로자와 아끼라 감독이 1952년 발표한 영화인데, 죽음학 분야에서는 여전히 중요하게 인용된다. 초연 후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50개가 넘는 상을 받았으며 1997년에는 세계 10대 고전영화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시청의 말단 과장인 주인공은 소화가 안 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위암 말기여서 완치를 위한 수술은 불가능하고 남은 시간이 수개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크게 낙심하여 평소에 하지 않던 술과 도박도 잠시 해보지만 마음의 공허감은 채울 수가 없다. 그렇게 실의에 빠져 있던 중, 몇 달 안 남은 자신의 마지막 삶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나라도 끝마치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에 이르자, 꺼져 가던 장작더미에서 반짝 불이 일듯 기운을 차리고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미결 서류더미에서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담겨진 민원서류 하나를 찾아낸다. 그것은 비만 오면 커다란 물웅덩이로 변하고 파리가 들끓는 마을 한 구석 버려진 공터를 어린이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진정서였는데, 7개나 되는 부서가 관여된 일인데다 그 누구도 성의껏 추진하려고 하지 않아 전혀 진척이 되지 않았었다. 주인공은 이 일을 직접 나서서 추진해 나간다. 해당되는 여러 부서의 과장이 결재 도장을 찍어 줄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 '끈끈이' 작전으로 매달린 결과, 마침내 어린이 공원은 완공되고, 공원 개장 전날 눈 내리는 밤 주인공은 그네에 앉아 나지막하게 노래를 부르다 숨을 거둔다.

주人公이 퇴근길 잠시 멈추어 서서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저녁노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모르고 30년을 살아 왔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없구나" 하고 말하고는 힘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걸음을 옮기는 장면은 무척 인상적이다.

1960년대부터 일본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바람직한 죽음문화의 정착에 힘써 온 알폰스 데켄 신부는 이 영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죽음에 임박해 타인에 대한 사랑을 통해 주인공은 기쁨과 만족감을 느꼈고, 죽음에 직면함으로써 비로소 보다 바르게 살 수 있었다."

역시 일본 영화인 "굿바이"는, 오케스트라의 첼로 연주자인 주인공이 악단이 갑자기 해체되는 바람에 실직을 한 후 고향에 내려가 일자리를 찾던 중, 여행 도우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이 사실은 '영원한 여행' 도우미, 즉 시신을 연습해 입관하는 일을 하는 곳이었고, 보수를 후하게 줄 테니 함께 일하자는 사장의 제안을 얼결에 받아들인 후 연습사로서 겪게 되는 여러 에피소드들을 잔잔한 감동과 더불어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있다. 건물을 헐고 큰 빌딩을 짓자고 때를 쓰는 아들의 성화에도, 오랜 단골손님의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며 변함없이 목욕탕을 운영해 오던 주인공의 어릴 적 친구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주인공의 경건하고도 정성을 다한 연습을 마친 후 시신은 화장터의 화장로로 옮겨지는데, 목욕탕의 수십 년 단골손님이자 고인의 친구이며 오랜 세월 화장로의 불을 지피는 일을 해 온 노인은, 뒤늦은 후회로 흐느껴 우는 고인의 아들에게 슬픔을 누르며 이야기한다. "여기 화장터에서 오래 일하면서 알게 됐지. 죽음은 문이야. 죽는다는 건 끝이 아니야. 죽음을 통과해 나가서 다음 세상으로 향하는 거지. 난 문지기로서 많은 사람을 배웅했지."

미국에서 발간된 죽음학 책 "The Last Dance; Encountering Death and dying"(생의 마지막 춤: 죽음, 죽어감과 대면하기)의 서문에서는, 죽음을 짝 막힌 벽으로 볼 것인지 열린 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얘기한다.

미국의 사진작가 유진 스미스의 1951년 작품 "후안 라라의 장례식"에서는,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에 둘러싸인 채 임종을 맞는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진은 수십 년 같이 살아 온 가족과 격리된 채 대형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외롭게 삶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세상을 떠나는 현대인의 모습과 크게 대조된다.

한편, 중세의 바니타스 그림 등을 통해서도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삶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엿볼 수 있는데,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지녀 온 죽음에 대한 이러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없는 것일까? 종교적 교리나 문화적 전통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 죽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을 겪는지 알 수만 있다면 이러한 두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물질을 중시하는 현대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의학에서의 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1970년대 중반부터 이에 대한 단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심장과 호흡이 멎은 사람을 되살리는 심폐소생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죽어서 더 이상 말이 없었을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생겼고, 이들 중 일부가 자신의 심장이 멎어 있는 동안의 경험인 근사체험 혹은 임사체험(Near death experience)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이에 관한 연구의 물꼬를 튼 사람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이다. 그는 원래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후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였는데, 이런 체험을 한 주위 사람들을 여럿 만나게 되면서 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의과대학에 들어갔고, 정신과 의사가 되는 과정 중에 근사체험자 150명을 8년간에 걸쳐 면담한 후 낸 책이 "다시 산다는 것(Life after life)"이다.

또한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는 수많은 어린이 환자의 임종을 지키면서 관찰한 공통된 현상과 그 외에 여러 사람의 근사체험에 대한 수십 년간의 경험을 기록한 저서 "사후생(死後生, On life after death)"에서 죽음과 임종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사후생"은 <한국 죽음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화여대의 최준식 교수(한국학)가 미국 한 대학의 서점에서 발견하고 번역해서 1996년 우리나라에 소개한 책인데, 최근 6-7년간 절판되었다가 2009년 1월 개정판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생수업", "상실수업", "생의 수레바퀴"라는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기도 한 로스 박사는 2004년 타계했고, 세계적으로는 죽음학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그녀가 제창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다섯 단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론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으며, 로스 박사는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1500년경 네덜란드의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슈가 그린 "천국으로의 승천"에는 근사체험의 여러 요소 중 하나인 터널을 통과하여 빛을 만나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다. 미국의 사진작가인 유진 스미스도 그의 한 작품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을 잘 포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영화는 2011년 초 상영되었던 "히어애프터"이다. Hereafter는 '지금부터는, 장래, 미래, 내세'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올해 나이 80대 중반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했고 40대 중반의 맷 데이먼이 주연한 영화이다. 인기 절정의 한 프랑스 앵커우먼이 인도네시아로 휴가를 갔다가 때마침 몰려온 쓰나미에 휩쓸려 죽었다가 심폐소생술로 되살아난다(심폐소생술을 해도 반응이 없자 포기했는데 잠시 후 극적으로 되살아난다). 심장과 호흡이 멎어 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근사체험을 하는데, 자신이 겪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여러 곳을 찾다가 한 호스피스 병원의 의사를 만나서, 그것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근사체험(임사체험)이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이에 관해 그 의사가 모아 온 자료를 건네받는다. 의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나는 과학자이고 무신론자여서 사후세계니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니 하는 얘기는 다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25년간 호스피스 일을 하면서 죽었다 깨어난 많은 사람들의 체험이 공통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걸 모두 우연의 일치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여주인공은 이 자료를 토대로 책을 완성하지만 어느 출판사에서든 출간하려고 하지 않자, 여주인공은 다음과 같이 탄식한다.

"우리들이 죽어서 가게 될 곳이고 죽어서 경험하게 될 일들인데... 우리 모두의 일

인데 어쩌면 모두들 그렇게 피하는지..."

근사체험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영화는, 故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가 생전 일관되게 주장한 "인간의 육체는 영원불멸의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차원의 이동일 뿐이다"를 잘 표현하고 있다.

천둥과 번개를 하늘의 노여움으로 생각했던 과거에는 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청났으나 그 실체를 파악한 뒤부터는 공포감을 덜 느꼈듯이, 죽음의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나면 그 두려움이 훨씬 줄어드는 것은 물론, 죽음을 내포한 생명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더 깊은 인식에 이르게 되어, 주어진 삶을 더욱 더 충만하게 향유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사후생. 죽음 이후의 삶의 이야기.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지음.  
최준식 옮김. 대화문화아카데미
2.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알폰스 데켄 지음. 오진탁 옮김. 궁리
3. 죽음 또 하나의 세계. 최준식 지음. 동아시아
4. 나도 이별이 서툰다. 죽음에 대한 어느 외과 의사의 아름다운 고백.  
폴린 첸 지음. 박완범 옮김. 공존
5. 이반 일리치의 죽음. 레프 톨스토이 지음. 고일 옮김. 작가정신
6. 유경의 죽음준비학교. 유경 지음. 궁리
7.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지음. 이시형 옮김. 청아출판사
8. 죽음의 기술. 피터 펜워, 엘리자베스 펜워 공저. 정명진 옮김. 부글 북스
9. 죽음과 죽어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지음. 이진 옮김. 이레
10. 나쁜 소식 어떻게 전할까. 암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우치토미 요스케,  
후지모리 마이코 편저. 김종훈, 김미영, 권미림 옮김. 국립암센터
11. 해피 엔딩, 우리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최철주 저. 궁리
12. 마지막 여행. 매기 캘러넌 저. 이기동 역. 프리뷰
13. 마지막 사진 한 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구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  
베아테 라코타 지음. 장혜경 역. 웅진지식하우스
14. 사람은 어떻게 죽는가. 셔윈 B 뉴랜드 저. 명희진 역. 세종서적
15. 아이와 함께 나누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 Earl A. Grollman 지음.  
정경숙. 신종섭 옮김. 이너북스
16. 다시 산다는 것. 레이먼드 A. 무디 주니어 지음. 주진국 역. 행간
17. 죽음에게 삶을 묻다. 유호종 지음. 사피엔스<sup>21</sup>
18. 죽음, 그 후. 제프리 룡, 폴 페리 공저. 김재성. 조옥경 공저. 한언

19.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기. 켄 월버 지음. 주진국 옮김. 한언
20. 우리 아이가 죽음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마리 엘렌 앙크르베 랑베르 지음.  
윤미연 옮김. 프리미엄박스
21. 죽음을 어떻게 살까. 아이라 바이옥 저. 홍종현 역. 다산글방
22. 죽음의 수업. 이이다 후미히코 저. 김종문 역. 인간사랑
23. 한국인의 죽음관. 이은봉 저. 서울대학교 출판부
24. 죽음이 눈뜨게 한 삶. 어느 말기암 환자가 보내는 삶의 메시지. 책만드는집
25. 죽음 그리고 성장.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저. 이주혜 역. 이레
26.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한국인의 죽음론. 김열규 저. 궁리
27. The Last Dance. Encountering death and Dying. DeSpelder LA, Strickland AL.  
8th Edition. 2009. McGraw Hill
28. Lommel PV, Wees RV, Meyers V, Elfferich I. Near death experience in  
survivors of cardiac arrest: a prospective study in the Netherlands. Lancet  
2001;358:2039-2045.
29.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 한국죽음학회 지음. 대화문화아카데미
30. 죽음의 미래: 종교학자가 쓴 사후 세계 가이드 북. 최준식 지음. 소나무
31.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 죽음 직전의 사람들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  
아이라 바이오크 지음. 광영단 옮김. 물푸레
32.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이부영 지음. 한길사
33. 삶과 죽음의 인문학. 정현채, 정진홍, 법타, 이기동 등 지음. 석탑출판
34. 의료인에 대한 죽음 교육으로서 영화의 활용. 대한소화기학회지(gastrokore.org)  
2012년 9월호 종설
35. 사후세계의 비밀. 마이클 팀 지음. 김자성 옮김. 북성재
36.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 이시토비 고조 지음. 민경윤,  
노미영 옮김. 마고박스
37. 죽음맞이. 인간의 죽음, 그리고 죽어감. 한국죽음학회 웰다잉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 모시는 사람들
38. 존엄사-III. 임종의료와 의학교육. 의학박사 김건열 편저. 최신의학사
39. 오늘이 내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KBS<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 저. 애플박스
40. 죽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오진탁 편저. 한림대학교출판부
41. 이별서약-떠날 때 울지 않는 사람들. 최철주 지음. 기파랑
42.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죽음학 강의. 최준식 지음. 김호연 그림. 김영사
43. 죽음을 원할 자유. 현대의학에 빼앗긴 죽을 권리를 찾아서. 케이티 버틀러 지음.  
전미영 옮김. 명량한 지성
44. 의사들, 죽음을 말하다. 김건열, 정현채, 유은실 지음. 북성재